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19. 12. 11(수) / 총 3매(본문3)
담당 부서	철도안전 정책과	담당자	•과장 김 인, 사무관 신영우, 주무관 이경순 •☎ (044) 201-4600, 4602, 4606
보 도 일 시		2019년 12월 12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12.(목) 06:00 이후 보도 가능	

서울교통공사 “고신뢰 선로전환기 개발” , 철도안전 최우수사례 선정

- 11일 「2019 철도안전 혁신대회」서 발표...철도 현장적용 및 안전향상
- 적극 발굴확산 유도 위해 철도 안전관리 수준평가 기점 등 혜택 제공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12월 11일(수), 각 철도운영기관의 철도 안전 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시상하여 철도안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철도안전 수준의 전반적인 확산을 위해 2019년 「철도 안전 혁신대회*」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다.

* '17년부터 매년 개최하였으며, '17년에는 『철도안전 보고대회』로 개최

○ 이번 대회에는 철도운영기관, 시설관리기관, 연구기관 등 철도 관련 기관의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, 철도안전 기술혁신, 철도 사상자 감소와 관련된 각 철도운영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,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.

□ 이번 혁신대회에서는 총 14개 기관에서 14건의 우수사례가 제출되었으며, 1차 예선(서면 심사)을 통과한 8건이 2차 본선에 진출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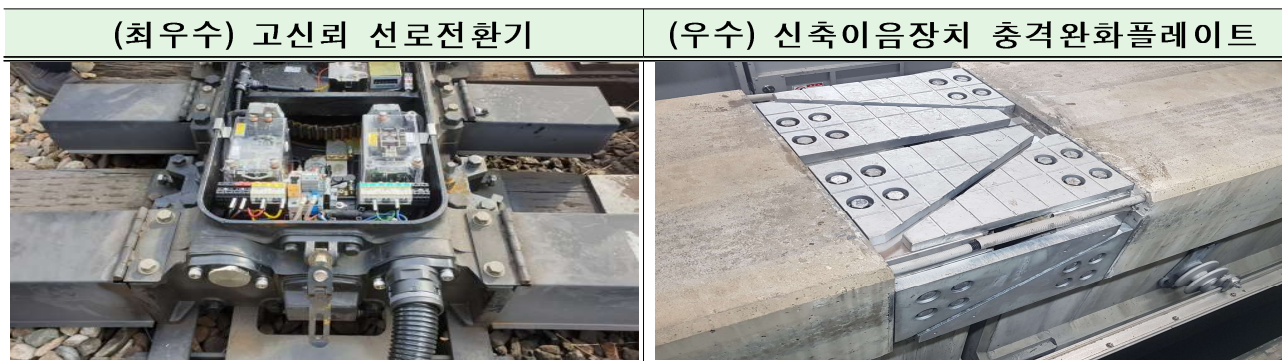
□ 2차 본선에서는 발표 심사를 통해 최우수작(국토교통부 장관상) 1건, 우수작(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) 1건, 장려상(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) 2건을 선정하였다.

○ 심사를 통해 최우수작으로는 서울교통공사(사장 : 김태호)의 “고신뢰 (HR) 선로전환기 개발”이 선정되었다.

- 최우수 사례는 선로전환기 내부회로의 신뢰도를 높여 안전성을 강화한 선로전환기를 자체 개발·활용한 것이 주요내용이다.

○ 우수작으로는 대구도시철도공사(사장 : 홍승환)의 “모노레일용 신축 이음장치 충격완화플레이트 개발·설치”가 선정되었고, 모노레일의 충격하중을 최소화하고, 승차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축이음장치 충격완화플레이트를 자체 개발·설치한 것이 주요내용이다.

< 최우수·우수사례 사진 >



○ 또한, 경기철도(주)(사장 : 김일도)의 “무인운전 인적오류 예방을 위한 관제지원시스템 개발·적용”과 공항철도(주)(사장 : 김한영)의 “철도차량 안전성 확보를 위한 비파괴검사 고도화” 등 2개 기관이 장려상을 수상하였다.

- 첫 번째 수상작은 관제사의 인적오류 방지를 위해 관제사들의 업무 효율성을 강화한 관제지원시스템을 자체 개발·적용한 것이고, 두 번째 수상작은 철도차량의 정비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비파괴검사를 고도화한 내용이다.

□ 그동안 혁신대회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철도현장에 적용하고 이를 업계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왔다. 보다 적극적인 발굴과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최우수상 수상사례에 대하여는 '철도 안전관리 수준평가*'에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.

* 철도운영기관의 자발적 안전관리를 위해 기관별 안전수준을 평가하는 제도

-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김인 과장은 “철도안전이 실질적으로 향상되기 위해서는 정책, 기술 등의 현장이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.”고 하면서,
- “이번 혁신대회에 제출된 우수사례들은 현장 적용성을 인정받은 만큼, 철도운영기관들이 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철도 안전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기를 기대한다.”고 덧붙였다.